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대학	기간	2016. 7. 10(일) ~ 7. 30(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Algoma University 에 파견 되었고 학교 시설은 깔끔하고 좋았으며 냉방도 훌륭하게 잘 운영되었던 것이 좋았고 현지 교수님들도 매우 좋았다. 수업방식은 교수님마다 달랐지만 한국과는 색다른 방식과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다. 수세인마리가 조금 작은 동네이긴 해도 보고 느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다만 조금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정말 딱히 할 게 없었다.
수업	수업 내용은 교수님마다 상이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학생-교수 간의 거리도 매우 가까워서 부담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각 수업 내용은 실생활이나 실용적인 정보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고 조별 또는 개인 발표 과제도 주어졌다. 엄청 어려운 과제는 아니었기에 이 또한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다. 어떤 교수님도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으며 피드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 수업은 교실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야외활동 (주로 봉사활동, 피크닉)을 하며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좋았다
Activity	Rotary Festival(축제 놀러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축제도 즐기는 활동), BushAirplane Museum(비행기 전시관에서 구경), Agawa Rock park(유명한 공원인데 엄청 풍경이 좋았다), Lake Superior(진짜 나중에 여행가면 꼭 다시 한번 둘러보고 싶은 호수) , Jade wellness centre(아이들과 만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을 가진 곳), Retirement House(이 스펠링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다. 무척 인상 깊었던 활동 중에 하나이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기온은 한국과 비슷하게 높지만 습도가 낮기 때문에 체감 상 기온은 그리 높지 않고 쾌적하다. 햇살이 따갑다고 느낄 정도로 햇빛이 강렬하긴 하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비가 온다. 날씨가 워낙에 역동적이라서 일기예보가 자주 틀리는 것 같다
안전	크게 위협을 느낀 적은 없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상당히 어두워서 혼자 밤늦게 다니는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
숙소	나의 홈스테이 집주인(Luke)은 직업이 Carpenter 였다. 캐나다에서 목수는 매우 매우 바쁜 편인 것 같다. 이 사람 얼굴 본 적이 손에 꼽는다. 하지만 음식을 아주 잘해서 가끔 집에 왔을 때 바비큐랑 각종 음식을 해주고 간다. 음식 맛은 정말 맛있다. 하지만 집에 오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매일 끼니를 직접 해먹거나 그것이 귀찮아 거의 항상 점심을 사먹기가 싫다면 집주인의 직업이 Carpenter 일 때 조심스레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을 권한다. 집주인 마다 다르겠지만 같이 갔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점심 도시락과 매 끼니를 챙겨주었다.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 외부식당 (O) 기타() 캐나다 사람들을 비롯한 서구문명에 속한 사람들이 왜 그리 비대한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먹어보면 안다. 거의 삼시세끼가 모두 빵 아니면 기름진 음식이다. 하지만 난 매우 만족스럽게 먹었다. 학교 건물에 있는 Tim hortons 도넛은 정말이지 꼭 먹어 보길 바란다.
교통	내가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의 위치였는데 내 홈스테이 집 위치가 정말이지 교통의 요지였다. 버스 터미널을 걸어서 다닐 수 있었고 집 주변으로 지나는 버스도 Sault College, Second Line 두 개의 버스노선이 지나가면서 Station Mall도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만큼 가까워 너무나 편했다. 학교까지의 거리는 버스를 타고 25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개인부담금(항공료 외 기타)	1,824,900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41,0000	아마 이렇게 쓰였을 것이다
밥값	40,0000	이 또한 그렇다
합계	81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캐나다 사람들에게 선글라스는 패션이 아니라 생활용품이에요. 선글라스 꼭 챙겨 가시길 현지 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 라면은 필수로 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배고플 때 먹는 라면만큼 맛있는게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불닭볶음면이 여러방면에서 유용해요. 맘에 안 드는 사람한테 불닭볶음면 만들어주세요. 효과 좋아요. 여행 경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810,000원을 500 CAD (한화로 약 450,000원) 환전해가고 나머지는 카드로 이용했는데 딱 적당한 것 같아요. 500 CAD는 너무 딱 맞고 600 CAD 환전해가면 쇼핑하고 밥 사먹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캐나다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점이 많은 것 같다. 일단 이 곳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 너무나 평화롭고 조용하며 여유가 넘친다. 음식은 짜고 기름지며 맛있다. Algoma 대학에서는 한국의 대학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며 버스에서는 이 곳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시민의식 등을 직,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문득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단기어학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대부분 교환학생을 지원한다는 국제교류처 직원분의 말씀이 기억이 난다. 나도 군대를 다녀와서 교환학생을 지원해볼 생각이다. 정말 느끼고 배울 점이 많은 곳이다.

7. 사진보고서 (6장 이상으로 사진 크기에 맞추어 표 변형 가능)



사진설명

Strawberry Picking Activity 사진이고 말 그대로 딸기 따는 활동이었다.
이 날의 날씨는 정말 무더웠지만 재미있었다. 딸기의 맛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조금 달랐다. 직접 먹어보길 권한다.



Rotary Festival Activity 이고 엄청 신난다 여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축제도 즐기고 이 또한 직접 해보길 권한다.



Rotary Festival 축제를 나옴 down town에 있는 타이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좌)

Home stay 가족 분들이 한국음식과 일본음식 Party를 열어서 오랜만에 김치 볶음밥이랑 오꼬노미야끼, 떡볶이등을 먹어본 날 (우)